희망을 두드리는 북 제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5일 식전공연에서 중앙무용단원 71명이 풍년을 비는 북춤, 이른바 풍고(豊鼓)를 추면서 취임식장을 달구고 있다. /연합뉴스

새벽 0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군방위 태세 점검으로 공식 업무 시작…오후엔 외빈 접견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방위태세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 당선인 집무실로 사용했던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과 역할을 인수받음과 동시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직접 전화를 걸어 군 근무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근무책임자인 이형국 대령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라는 말로 취임식에 11시간 앞서 임기 개시를 공식화했다.

합참본부에 이어 남극세종기지와의 통화를 마친 이 대통령은 삼청동 당선인 관저에서 새벽잠을 청한 뒤 오전 9시30분께 지난 2006년 6월 말 서울시장 퇴임 직후부터 대선 때까지 거주했던 가회동 자택에 들러 동네 주민들과 잠시 티타임을 가졌다.

오전 9시55분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자택을 나선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5년 후에 성공해서 나오겠다" "서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하며 동네를 떠났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전용 1호 벤츠 승용차를 타고 국립현충원에 들러 참배하고 곧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 오전 11시 전직 대통령과 3부 요인, 외국 고위사절단 및 일반 시민 등 6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이명박정부'의 개막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청와대로 가는 길에 서울시청 앞 광장과 효자동에 잠시 들러 자신의 대선승리에 든든한 지지기반이 됐던 서울시민들이 준비한 환영행사에 참석,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직원들의 환영 속에 청와대에 '입성'한 그는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내정자 및 수석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발령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청와대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 '취임식 외교'에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오후 1시50분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및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증진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어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접견하고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공조방안을 조율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다시 국회로 이동, 경축연회에 참석한 뒤 다시 청와대로 돌아와 빅토르 주브코프 러시아 연방총리,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 등을 연쇄 접견했다. /연합뉴스

'시화연풍 아리랑' 합창 희망의 새시대 연호

■ 취임식 이모저모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5천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설렘과 희망이 넘쳐나는 한바탕 축제속에 치러졌다.

전직 대통령들 한자리에

○…이날 연단 뒤편에 마련된 내·외빈석 앞쪽에는 왼쪽부터 임채정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재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고현철 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앉았다. 빅토르 주프코프 러시아 총리, 훈센 캄보디아 총리 부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남바린 엥흐바야르 몽골 대통령,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 부부, 유스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부부 등도 자리를 잡았고, 그 옆으로는 김대중·김영삼·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채꼴 형태로 차례대로 앉았다.

부채꼴 형태로 감싼 좌석 앞의 오른쪽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착석했고,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그 왼쪽편에 앉았다.

객석 앞 T자형 단상서 연설

○…식전행사에 이어 오전 11시 시작된 본행사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로 시작됐고,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식사가 이어졌다.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연대에 나온 이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했다. 곧이어 군악대 행진과 의장대 사열이 이뤄졌고, 이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답례했다. 그 순간 '이명박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예포 21발이 여의도벌을 갈랐다.

포성이 가라앉자 이 대통령은 이제 T자형 단상의 객석 방향에 설치된 연단으로 이동해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차분한 어조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다"면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단 아래까지 盧전 대통령 배웅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와 이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연단 아래까지 내려왔다. 이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을 보고서야 입장할 때처럼 중앙통로를 통해 국회 정문까지 행진했다. 이 대통령이 퇴장행진을 하기 위해 다시 국회 중앙통로로 나서자 정문 앞까지 국민대표, 한류스타, 공연 출연진, 군의장대·취타대·군악대가 일렬로 도열해 새 대통령의 앞날을 축복했다.

일반인 참석자들도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이 작곡한 '시화연풍 아리랑'을 합창하면서 미리 받은 빨강·파랑·노랑색 머플러를 흔들어 취임식장은 그야말로 형형색색의 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합의 물결을 이뤘다.

고향 덕실마을서도 축하 열기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마을인 포항시 흥해읍 덕실마을이 취임식이 열린 25일 오전 축하 열기로 달아올랐다.

덕실마을에는 이날 오전부터 흥해농협 풍물패 30여명이 마을을 돌며 흥겨운 농악놀이로 잔치 분위기를 북돋웠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풍선과 태극기를 든 채 마을회관 앞에 설치된 대형 멀티비전으로 취임식 장면을 지켜보며 감격해 했다.

주민들은 TV를 통해 이 대통령이 나올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반드시 존경받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기원했으며 대통령의 선서가 끝나자 손에 든 풍선 2천여개를 공중에 날리는 장관도 연출했다.

마을에는 오전 10시께 관광객들을 싣고 온 수백대의 차량들이 마을 진입로와 도로변에 몰려 큰 혼잡을 빚었으며 방송사 중계차 등 언론들도 마을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정무기능 강화 '당정청 일체' 구축

■새정부 대여·대야 관계

대야관계 인내심 발휘 지적도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대목은 향후 대여 및 대야관계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키워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당선인 시절부터 정쟁을 일삼는 '여의도식 정치'를 타파하고 여야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낸 언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여관계의 경우 선진화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당·정·청이란 '삼륜(三輪)'을 통해 안정감있게 수행해나가고, 대야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롭게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여관계=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정·청 일체'를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을 부활하고 4월 총선 뒤 옛 정무장관과 유사한 역할의 정치담당 특임장관을 신설키로 한 것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 대표와의 주례회동이 부활되고, 당·정·청 고위 협의체가 국정의 사령탑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야관계=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야당과 대화의 문을 활짝 열지는 아직 미지수다. 오히려 정권 초기부터 총리 국회인준, 각료 인사 청문회 등에서 야당과 날선 대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과다보유 등을 이유로 일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실시될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표결과 관련,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등을 거론하면서 '권고적 반대 당론'을 채택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 정치'를 위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